

옹벽을 쳐도 100년을 내다보고...

정리/이창훈기자



한재권사장과 부인김순경씨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그동안 수입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반조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산자들이 자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

양계업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

었지만 수입개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일념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과감한 투자와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해결점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계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에

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위치한 강남부회장 한재권사장을 찾아 신년사업구상을 들어본다.

육용종계(아바이에카)를 주 품종으로 생산하는 강남부회장 한재권(43세)사장은 맨손으로 종계업을 시작하여 온갖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종계인으로 꼽히고 있다.

끼니 해결하기도 힘든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다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일푼으로 성공하겠다는 일념하나만 가지고 서울로 상경, 한일농장에 일하면서 처음으로 양계와 인연을 맺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활신조하에 철저한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까지 치러낸 학구파이기도 하다.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지만 장래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 한사장의 자녀관이다.

부인 김순자여사(38세)와의 사이에 1남2녀(혜진:11세, 혜수:9세, 우진:6세)를 두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일부에 모르는 아빠로 통하기도 한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양계업만이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 10여년간 양계장에서 일해 모은돈으로 독립 결심

1969년 상경 당시만 하더라도 무일푼에다 양계에 대해서도 백지상태였으나 한일농장에 일하면서 열심히 양계기술을 습득하였고, 봉급으로 받던 4천원(지금의

쌀 5말 정도)을 10년간 저축하여 자본금을 마련, 79년8월 서울 세곡동에다 발생기4대, 발육기 16대로 본격적인 부화업을 시작하였으며 종란생산은 위탁생산을 하였는데 사육방식은 대부분 평사였다.

또한 계사단위가 작아 한동에 4천500수 정도 규모로 시설 또한 낙후되어 사람이 직접 점등조절을 해야하는가 하면 사료는 1차사료로 농장에서 직접 물에 개어서 급이하였으며, 단열수준 또한 계사내에 있는 물이 얼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여 현재의 강남 부화장은 용인부화장이 주당 30만개를 입란하는 부화시설과 직원이 16명인데 금년초에 시설을 보완 50만개를 입란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에 있다. 종계장은 1농장에 3만수에 종업원 7명,

2농장은 3만수규모에 계분을 완전처리, 비료화 할 수 있는 계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 7명, 3농장은 4만수 규모의 육성농장으로 종업원은 7명, 둔포농장은 4만수 규모로 자동계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은 9명, 평택농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입란능력이 주당 50만개 규모의 부화장으로 육용종계만을 전문으로사육 육계병아리만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79년 8월중에 사업시작후 처음으로 병아리를 출하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병아리 가격이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하기 시작하여 그 여파가 장시간 지속되어 처음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82년 용인의 수지농장 설립때는 불법농지전용문제로 법적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두리지역 아무곳이나 땅을 구입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축사를 신축, 사용해왔으므로 그것이 불법농지전용이라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다.

그 이후에도 '86년경에 시작된 불황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어 '87년 10월경에는 병아리값이 100원대까지 하락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상태에 이른적



직접 계군신태를 점검하기도

도 있었다.

○ 종계인으로서의 사명감 가져야...

종계생산자들은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더 필요하다. 양계업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우수한 병아리의 확보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병아리가 양계농가의 생산성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종계인들은 양계업의 1차원료 공급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정기적인 혈청검사로 종계생산성 향상시켜...

위생계육 생산에 있어서도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질병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생산자나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을 함께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단위 밀집사육이라는 양계산업의 특성 때문에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피해나 그 정도는 타축산업 보다도 양계업이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계군의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하여 계군의 면역수준을 파악하고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러므로 우리농장의 경우 양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청검사소에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종계군의 항체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계군의 특정전염병(추백리, 만성호흡기병, 뉴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감보로병, 산란저하·76 등)에 대한 면역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접종백신의 효과판단 및 백신의 정확한 접종유무확인, 질병발생시의 조기검색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백신접종이나 위생관리 및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농가들이 혈청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질병으로 인한 계군의 집단폐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 올-인, 올-아웃방식으로 전환해야

강남부화장의 경우 올-인,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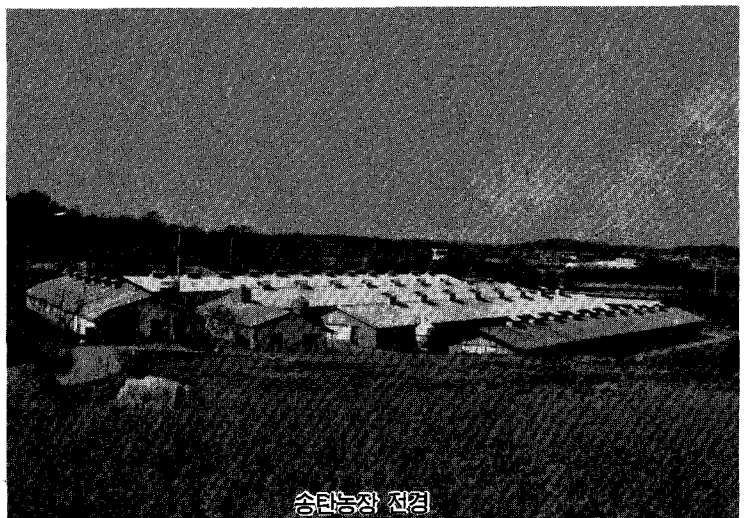
-아웃 방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출하후에 2~3개월간 쉬면서 계사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제기되어온 종계 40주령 전후의 급격한 생산성 저하를 올인 올아웃방식을 철저히 이행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계사내는 물론 계사주변까지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 신념가진 축산인은 적극 지원해야

정부에서 축산부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폭의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일부사람들이 축산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신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장으로 임대하는 등 허가시의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진정한 축산인들이 축사확장이나 신축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과 협회같은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애착과 국민식생활 제공자로서의 사명감있는 축산인을 엄정·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91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시설자금지원 등 양축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혜택의 폭이 좁고 막상 지원을 받은 농장들도 자금배정을 “정부지원안”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을 뿐 아니라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적인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원자금에 대한 사용조건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대폭 늘려주어야 하며 또한 축산기자재 및 약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여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사업주가 아무리 훌륭한 사업구상과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관리해줄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좋은 작업환경 및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자동화 시설이 고려될 경우 계사는 현재보다 더 넓은 면적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농지전용에 있어서 지금의 면적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신고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 전용면적을 대폭 늘려야하고 자동화 시설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노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육수수도 더 높게 잡아 이 부분에도 지원이 따라야 한다.

○ 원칙에 의한 사양관리를

“옹벽하나를 쌓는데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강남부화장을 이끌어 왔다. 새로건축하는 시설은 지금의 나뿐만아니라 후대에 어느 누가 이용해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단열과 환기 및 소독 등의 사양관리에 있어서도 지나치리만큼 원칙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이 들끓는 그런 계사환경으로는 더이상 양계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계사신축이나 사양관리, 계분처리 등에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사양관리, 완벽한 계분처리가 이루어져야만 건강하고 위생적인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다.

○ 생산제품의 상표화

요즘에는 일반 가전제품은 물론 아이들이 가지고노는 장난감까지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메이커”를 찾는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메이커”라 하면 그 제품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시점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도 다양한 외국제품이 상표화되어 들어온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그들과 경쟁이 되지않는다는 것은 우리자신 스스로가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양계업체들도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제품의 품질향상과 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더불어 이들 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상표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열화 사업을 정착시켜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며 상품화를 서둘러 나가야 육계산업과 종계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생산농가들이 계열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계열화관련자 및 계열주체들은 생산농가에게 계열화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하며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계열화 추진시 어느 한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기존업체들도 계열화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수직·수평 통합방식의 계열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강남부화장은

'91년도 부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는 차원에서 우수병아리 생산을 위한 투자와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중이며 국민식생활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아래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중에 있다.

또한 유통산업에도 시일은 다소 걸리겠으나 반드시 참여하여 생산제품의 상표화를 추진, 제품의 신뢰도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장도 완벽한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인력난에 대응하고, 농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가장 위생적이고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하여 종계·부화업계의 선두주자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훈을 걸고 육계산업을 안정화시키는 일에도 한 몫을 해내는 강남부화장의 터전을 새해부터 다져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일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 **양계**

양계 용어 정리

13. 닭의 품종

세계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닭의 품종은 수 백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에는 품종으로 공인된 후 경제성이 없어서 사육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현재 많이 사육되고 있는 품종은 수십종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 품종들도 생산능력(productivity)의 향상을 위한 육종기술의 발달로 순종(pure breed)의 상태로 사육되는 경우가 적고, 거의 대부분이 합성종(synthetic variety)으로 사육되고 있어 품종보다는 내종(variety) 또는 계통(strain)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종(Species): 동물분류학상 최종 분류단위로 외모가 비슷하고 암수 및 후손사이에 번식이 가능한 동물군

예)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

아종(Sub-species): 종중에서 공통된 특징 중 용도, 원산지 또는 개량도 등에 의해 분류되는 동물군

예) 난용종, 육용종, 영국종, 개량종, 재래종 등

품종(Breeds): 아종 중에서 몸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다시 나눈 것

예) New Hampshire종, Plymouth Rock종 등.

내종(Variety): 품종 중에서 깃털의 모양 또는 깃털색에 따라 나눈 것

예) 단관백색 Leghorn종, 단관흑색 Leghorn종 등.

계통(Strain): 품종이나 내종 중에서 육종학적으로 특수한 특성을 가지는 계통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보통 그 계통을 만든 육종농장의 이름이 계통의 이름이 된다.

예) 백색 Leghorn종 성환계통 등.